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소식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16 백제빌딩 3층 (우 561-811)
■ TEL : 063-271-3400/ FAX : 063-271-1114

안녕하세요. 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덧 만 1년차 민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영 변호사입니다. 전북지부의 일원으로서 올해는 제가 민변 가족분들께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즐겁고 큰 영광으로 여기며 올 한 해 민변 전북지부의 활동과 훈훈한 추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I. 2017년 민변 전북지부가 걸어온 길

1

연대활동

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9월 5일 전주MBC와 KBS전주총국의 구성원들이 김장겸, 고대영 사장, 이사진들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뉴스의 신뢰성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지난 9월 11일에는 전북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협력관계를 만들어 사회 곳곳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진정성 있는 인권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론 및 그 외 활동

변론활동으로서 김승환 교육감 사건, 제대 직전 군영창 15일 사병에 대한 집행정지 등 변론지원,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공동 변론, GMO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익산 장점마을 사건(현재 TF구성 중), 시민법률학교 강연, 학교폭력 토론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난 11월 10일 전북지부의 '제3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예술적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에서 전북지부 회원들과 전북대, 원광대 공익인권법 학회 학생들이 어울려 인권과 환경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님의 강연을 들으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님은 전북지역 내의 환경운동 현안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역사 및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주셨고, 전북지역에서 서식하는 맹꽂이, 반딧불 보호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아디ADI) 이동화 활동가님이 국제인권이슈로서 '로힝야, 이슬람, 우리 안의 혐오'라는 주제로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실태,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혐오에 대하여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 주셨으며,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혐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후에는 전주의 명물인 막걸리와 함께 단체게임을 하며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법률용어, 사자성어 등을 몸으로 설명하며 정답을 맞추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며 서로의 몸개그 잠재력을 확인했고, 민변회원과 인권법학회 학생들 간 끈끈한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연한 가을 밤, 한옥의 정취,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숙소까지(한옥마을 내 연우당) 모든 것이 완벽한 워크샵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Ⅲ. 송별과 송년의 밤

지난 12월 14일 전북지부의 가장 젊은 회원이자 전북지부의 마스코트인 함혜란 변호사의 송별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애정을 가득 담은 롤링페이퍼를 만들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했습니다. 함혜란 변호사의 에너지와 유쾌함 덕분에 밝은 송별회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동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서운함을 뒤로 한 채 서울에서 더 큰 꿈과 포부를 펼칠 함혜란 변호사의 미래를 응원하며 송별회 자리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민변 전북지부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김현승 지부장님의 2018년 민변전북지부의 계획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 간 덕담을 나누면서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을 활기차게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IV. 2017년을 되돌아보며

지부소식지를 준비하며 신입회원으로서의 지난 1년 간 민변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잠시나마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9월에 있었던 제 결혼식에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민변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후배 변호사들을 동생처럼 아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민변의 힘은 역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며 지난 해 민변 입회 시 작성했던 입회원서를 다시 열어 '변호사라는 창을 가진 만큼 늘 꿈꿔왔던 사회에 긍정적인 존재가 되자는 것, 지금껏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나누자'는 처음의 다짐을 되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민변 전북지부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파도가 되길 바라며 민변 전북지부 소식지를 마치고자 합니다.